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3월 27일
제1889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루카 15,20-21)



〈탕자의 귀가〉, 최영심 작

사순 제4주일 (다해)

제 1 독서 **여호 5,9ㄱ.10-12** |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화답송 **시편 34(33)**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 2 독서 **2코린 5,17-21** |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복음 **루카 15,1-3.11ㄴ-32** |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때에 ¹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²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³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¹¹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¹² 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¹³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쟁쳐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¹⁴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¹⁵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¹⁶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¹⁷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¹⁸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¹⁹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

²⁰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²¹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²²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²³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²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²⁵ 그때에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²⁶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²⁷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몹성히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²⁸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²⁹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³⁰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³¹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³²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

†복음 묵상

루카 복음 15장은 ‘소외된 이들의 복음’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Sayings of Jesus, T.W. 맨슨, 282면 참조). 특히 세 가지 비유 (15,4-7.8-10.11-32 참조)의 연속 배치는 소외된 이들을 향한 하느님의 관심을 증명합니다. 14장과 16장에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을 환대하는 행위의 중요성을 다룸으로써, 15장의 중심 주제가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예수님께서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되찾은 아들의 비유 (15,11-32 참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보고 매우 불만스러워합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의 왜곡된 인식을 고쳐 주시려고 비유를 들어 가르치십니다.

비유의 구조는 단순하고, 주제는 명확합니다. 비유 속 주인공인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것, 곧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찾았고, 아들을 찾은 것에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서 이 비유를 통하여 잃음에 대한 슬픔이 아닌, 찾음에 대한 기쁨을 전해 주고자 하십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청자, 곧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의 반응에 대한 묘사 없이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서 이으로써 잃어버린 이를 찾는 기쁨에 함께하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할 때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도 그분과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정진만 안젤로 신부>

성화 해설
탕자의 귀가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루카 15,20)

얼굴 맞대고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눈에 가득한 사랑과 용서
아버이 같이 항상 안아주시는, 하느님의 부성 모성 함께 표현

유리화가 최영심의 ‘탕자의 귀가’는 수서동성당의 고해소에 장식돼 있다. 루카 복음(15,11-32)에 나오는 ‘탕자의 귀가’는 세계의 많은 화가가 즐겨 그림으로 표현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온몸으로 끌어안기 위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아들은 양팔을 내밀어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있다. 얼굴을 맞대고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사랑과 용서가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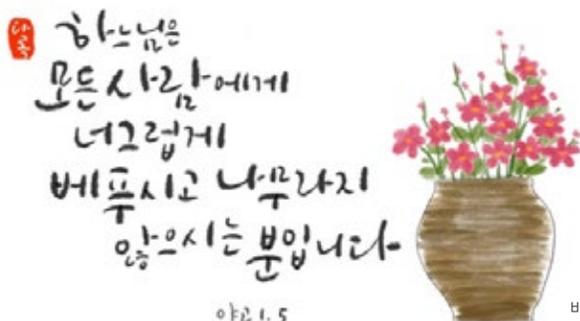
아버지의 품 안에서 비로소 따뜻한 사랑을 발견한 아들은 평화로운 표정을 짓는다. 아들의 온몸을 감싼 붉은 옷은 그가 이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물들어 있음을 드러낸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총의 햇살이 이들을 감싸준다.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은 모습은 어머니가 아기를 품은 것처럼 보인다. 작가는 하느님께서 지닌 부성과 모성을 함께 표현했다. 하느님은 우리를 아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안아주시는 분임을 알려준다.

탕자와 아버지가 만나는 장면 아래에는 사슴을 쫓은 젊은이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다. 큰아들인 그는 이들이 만나는 시간에 들에 나가 일을 하던 중이었다. 그는 방탕한 동생을 너무나 쉽게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처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러나 그도 머지않아 아버지의 큰 사랑 안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이 비유에 나오는 선한 아버지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반기시는 하느님 아빠의 표상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연민의 정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면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느님이시다.

〈정음모 신부의 아름다운 성화 아름다운 인생 중〉



야간 1.5

바로로 딸 콘텐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비로소 따뜻한 사랑을 발견한 아들은 평화로운 표정을 짓는다. 아들의 온몸을 감싼 붉은 옷은 그가 이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물들어 있음을 드러낸다.



자비로운 아버지

하느님은 언제나 자비심을 품고 계십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언제나 자비롭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운 아버지입니다!

하느님은 아들을 기다리며, 마중을 나가고,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부터 그가 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느님은 아들이 집에 오는지 확인하려고 매일 매일 마중을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아들을 그리며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하는 매일 묵상〉

성소국 주최 알링턴 교구 여름캠프

알링턴 교구 성소국 주최로 남녀 고등학생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생활과 기도하는 법을 경험하게 하는 4박 5일 여름캠프에 학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위한

Quo Vadis SUMMER CAMP

July 10-14, 2022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위한

FIAT SUMMER CAMP

July 17-21, 2022

장소

Mount St. Mary's University and Seminary, Maryland
16300 Old Emmitsburg Rd, Emmitsburg, MD 21727

- 현재 9학년 ~ 12학년 고등학생만 신청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4월 13일에 참가자를 발표합니다.
- 신청 기간 : 3월 한달 동안
- 참가자 등록 마감 : May 9 (캠프 참가자로 당첨된 학생)
- 참가비 : \$250 (성소후원회 전액 장학금 지급)
- 문의 : 김만식 재권 요셉 (703) 403-1185

Sign up for the **Quo Vadis and FIAT Camp Registration Lotteries**

신청하기

<https://www.arlingtondiocese.org/vocations/vocation-camp-lottery/>

1 2차 헌금 (Catholic Relief Services)

- 이번 주일은 Catholic Relief Services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십자가의 길과 미사 (오전 5:30)

- 주님수난 40일간의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수난 여정에 함께 하며 기도와 자선과 희생의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3 The Light is ON for You

- 사순시기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6:30부터 8시까지 성체현시와 고백성사가 있습니다.
교구내 모든 본당에서 같은 시간에 실시됩니다.



4 2022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약정

-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를 약정받습니다. 알링턴 교구에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적은 액수라도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BLA 약정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세요.
- 참조 :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5 사순 특강 안내

- 일시 : 3월 27일(일) 오후 12:30 - 14:30 (친교실)
- 강사 : 이상훈 요한사도 신부님(LA 라파엘 성당 주임)
- 주제 : 가장 하느님다우신 하느님 / 예루살렘의 예수

6 루카회 월례회의

- 일시 : 3월 27일(일) 오전 11:30 (B- 3,4)

7 요한회 월례회의

- 일시 : 3월 27일(일) 오전 11:30 (B-1,2)

8 묘지 구입(20% 할인) 및 정리

- 일시 : 4월 2일(토) 오전 11시
(Fairfax Memorial Park 사무실)
- 문의 : 홍의훈(요셉) 연령회장 (703) 966-8206

9 파티마 세계 사도직 첫 토요 신심 기도 및 미사

- 일시 : 4월 2일(토) 오전 10:30 (첫 토요 신심 미사)
- 파티마 세계 사도직 기도회는 오전 9시에 있습니다.

10 구역 봉사자 회의

- 일시 : 4월 3일(일) 오전 11:40 (B-3,4)
- 소공동체 봉사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아세례

- 일시 : 4월 9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성모회원 모집

- 성모회에서 봉사해 주실 신자분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김 수산나 성모회장 (703) 547-7703 이나 주임 신부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부활 제대 장식 꽃 봉헌

- 부활 제대 장식을 위해 꽃을 봉헌해 주실 분은 제대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성삼일 전례 안내

- 4월 14일 성 목요일 : 주님 만찬 미사 오후 8:30
- 4월 15일 성 금요일 :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주님 수난 예식 오후 8:30
- 4월 16일 성 토요일 : 파스카 성야 미사 오후 8:30
- 4월 17일 주님 부활 대축일 : 8시, 10시, 5시(청년) 미사
(주일학교 미사는 10시에 친교실에서 봉헌됩니다.)

세계주교시노드에 따른 본당 전신자 경청회
4/3/2022

- 일시 : 4월 3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
- 세계주교시노드와 관련하여 각 가정에 발송된 의제를 가지고 전 신자들을 대상으로 시노드 경청회를 실시합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사도회 임원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NEW **코로나19 본당 행정지침**

오미크론 변이 대 확산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던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신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본당의 코로나19 행정 지침을 4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1. 마스크 착용은 개인 선택으로 하며 손 소독은 계속됩니다.
2. 영성체 방식은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3. 본당 입구 성수대와 성가책 사용도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전염병의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에서 유럽의 확산세와 비슷한 코로나19 감염의 증가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적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링턴 교구 여름캠프

현재 9학년 ~ 12학년 고등학생만 신청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4월 13일에 참가자를 발표합니다.

참가 신청 : 본당 웹포모에서 확인하세요

주님 수난 40일간의 여정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이사야서 53,5)

3월 3일(목) - 4월 13일(수)

월요일-토요일(오전 5:30)	십자가의 길과 미사
주일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예식

- † 성 목요일(4월 14일) 주님 만찬 미사 오후 8:30
- † 성 금요일(4월 15일)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주님 수난 예식 오후 8:30
- † 성 토요일(4월 16일) 파스카 성야 미사 오후 8:30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3월 20일(사순 제3주일)

주일헌금	\$ 6,328.00
교무금	\$ 8,360.00
교무금(신용카드)	\$ 6,130.00
2차 헌금	\$ 2,965.00
감사 헌금	\$ 1,590.00
온라인 봉헌	\$ 2,755.00
합계	\$ 28,128.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 바로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3월 31일(목) 오후 5:00-6:00
4월 1일(금) 저녁 8:00-9:00
4월 3일(일) 오전 6:00-7:00

1. 신부님 주일 강론
2. 특강 : 김진태 안드레아 신부님의 “하느님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4) - 건축 리모델링의 원조 바실리카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